증상 조절 넘어 염증 호전 '내시경' 조기 치료해야



이 준
조선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궤양성 대장염

잦은 설사·혈변 6주 지속 의심
10년 새 국내 환자 2배↑ 급증
관절·피부 등 전신 합병증 동반
환자 맞춤형 정밀 치료가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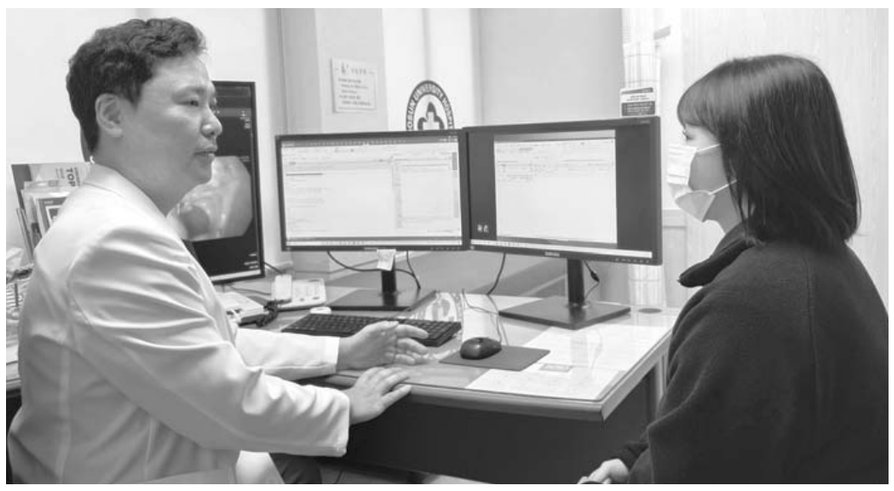
◇단순 장염으로 오인하기 쉬운 궤양성 대장염의 징후

"저는 원래 장이 좀 예민한 편입니다." 잦은 설사 또는 무른 변을 호소하며 진료실을 찾는 젊은 환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말이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나 자극적인 배달 음식 탓이겠거니 하며 스스로 진단을 내리고 방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되고, 급기야 끈적한 점액이 섞인 붉은 혈변까지 묻어 나온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절박감이 심하고 대변을 본 후에도 찜찜한 잔변감(뒤무직)이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아니라 대장 점막에 연속적인 염증과 궤양이 발생하는 '궤양성 대장염'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과거에는 서구권의 질환으로만 여겨졌으나, 최근 국내에서도 서구화된 식생활 등의 영향으로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궤양성 대장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14년 3만2천여명에서 2025년 6만6천여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뿐만 아니라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도 환자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어 전 연령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장에서 시작되는 염증, 대장 전체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궤양성 대장염의 뚜렷한 단일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이 서구화된 식습관 등 환경적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면역 체계의 오작동이 유발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염증은 주로 항문과 인접한 직장에서 시작하며, 좌측 대장이나 전체 대장까지 연속적으로 침범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대장 점막에 얕고 넓게 퍼진 염증과 궤양은 지속적인 출혈을 일으키며, 증상이 심해질 경우 발열, 복통, 그리고 체중 감소를 동반해 환자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궤양성 대장염은 장내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관절, 피부, 눈 등 전신에 걸친 장외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병변의 침범 범위와 중증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치료의 첫 단추다.



이준 조선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증상 완화를 넘어 '내시경적 개선'을 향한 조기 치료 패러다임

과거 궤양성 대장염 치료는 설사나 혈변과 같은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집중했으며, 치료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스텝업(Step-up)' 전략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 증상이 없는 상태를 넘어 혈액 및 대변 염증 지표의 정상화와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염증이 호전되는 내시경적 개선을 주요 치료 목표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조직학적 관해까지 추구하는 등 치료 목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까지 철저히 조절함으로써 장기적인 대장 손상과 합병증을 예방하고, 수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제적으로는 질병의 중증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효과가 높은 치료를 보다 일찍 사용하는 '탑다운(Top-down)'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소화기학회(AGA) 등 최근의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특히 중등도-중증 환자군에서 필요한 경우 고강도 치료(advanced therapy)를 조기에 고려하는 '조기 개입(early intervention)' 전략을 권고하고 있다.

◇대장 손상 누적을 막는 정밀 의료와 맞춤형 치료

궤양성 대장염 치료는 질환의 중증도와 침범 범위에 따라 아미노살리실산(5-ASA) 같은 항염증제, 스테로이드, 면역조절제를 비롯해 최근 치료 성적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생물학적 제제와 소분자 물질들을 다양하게 사용한다. 이러한 약제들은 환자의 나이, 질병의 활성도, 동반 질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개인에 맞게 선택된다. 이처럼 치료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조기에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한 약제를 적시에 사용해 염증을 충분히 억제하는 맞춤형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리=임채만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첨단 의생명연구 역량 국제무대 소개

WHO 바이오 교육생 11개국 15명 방문
첨단정밀의료·면역치료 인프라 등 공유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세계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들에게 첨단 의생명연구 인프라와 미래 바이오의료 연구환경을 소개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전남바이오진흥원이 운영하는 '2026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허브 지원사업'과 연계해 해외 바이오의약품 분야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시설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허브 사업의 교육과정인 '2026 Hands-on Training for GMP in Biomanufacturing and MFDS Regulations'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한국의 선진 바이오의료 연구환경을 공유하고 의료현장과 연계한 첨단 의생명연구 현장을 소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이집트,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가나 등 11개국에서 온 교육생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국의 의약품 규제기관과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 관련 기업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며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연구와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유수웅 의생명연구원 연구기획부장(가운데) 등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교육생들은 화순전남대병원의 주요 연구 분야와 연구지원 체계, 임상연구 인프라를 살펴보고 암 전문병원으로서 축적해 온 임상연구 역량과 선진 연구환경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첨단정밀의료산업화지원센터에서는 주요 연구시설과 정밀의료 분야 연구지원 기능을 소개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첨단정밀의료와 면역치료 등 미래 바이오의료 분야의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임상연구와 첨단 연구기술을 연계한 연구활성화 및 산·학·연·병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생들은 면역치료혁신센터를 방문해 암 면역치료 분야의 주요 연구시설과 장비,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오인재 의생명연구원장은 "이번 방문은 화순전남대병원이 축적해 온 암 특화 임상연구 역량과 첨단 의생명연구 인프라를 세계 각국의 바이오 전문인력들과 공유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광주신세계안과, 순수 굴절형 인공수정체 '럭스라이프' 도입

지역 최초…노안·백내장 렌즈 선택 폭 확대

광주신세계안과는 10일 "글로벌 안과 전문기업 바슈롬(Bausch+Lomb)의 최신 순수 굴절형 노안교정 인공수정체 'LuxLife(럭스라이프)'와 'LuxSmart(럭스스마트)'를 전남광주 최초로 도입하고 첫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



노안·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단초점부터 다초점, 연속초점까지 종류와 광학 설계가 다양하다.

럭스라이프는 원거리부터 중간거리, 근거리까지 폭넓은 연속 시야를 제공하는 Full Range of Vision 렌즈다. 바슈롬의 Pure Refractive Optics(PRO) 기술을 적용해 렌즈 광학부 전체를 연속된 굴절면으로 구성하고 2개의 ART Zone을 통해 빛의 진행 방향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기존 회절형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빛을 여러 초점으로 분배하는 광학 구조의 특성상 일부 환자에서 야간 빛 번짐이나 달무리, 눈부심 등의 시각적 불편이 나타날 수 있다. 럭스라이프는 회절링을 사용하지 않는 설계를 통해 이 같은 시각적 불편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도 원거리부터 근거리까지 폭넓은 시야를 원하는 환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함께 도입된 럭스스마트 역시 회절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 순수 굴절형 인공수정체다. 럭스스마트는 렌즈 중심부에서 4차·6차 구면수차를 조절하는 광학 설계를 통해 원거리와 중간거리 시야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설계된 EDOF(확장된 초점 심도) 인공수정체다.

김재봉 광주신세계안과 대표원장은 "이번 럭스라이프와 럭스스마트의 전남광주 최초 동시 선제 도입과 성공적인 첫 수술은 환자분들께 대학병원 이상의 최첨단 의료 서비스를 발 빠르게 전하고자 하는 본원의 의지"라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KH MEDI CHECK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
건강검진
매일체크 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